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스가랴 4:1-10)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습니다. 이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목사님과 선교팀이 지금 아리조나에서 선교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미와 미국이 바로 우리의 현장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돌아오시는데, 모든 것이 마무리 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진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내 힘으로 해볼만 하다면 그것도 상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가족의 문제들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사업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 힘으로 해야만 된다면 삶은 무겁고 힘들고 고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문제들만 고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신앙생활도 고단합니다. 피곤할 때 우리들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다 귀찮아. 아무도 나 건들지마, 나 지금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런데 언약을 누린다는 것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인 문제 앞에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나약함,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새생명을 얻기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충분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4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문제들, 무능력, 불가능이 하나님 안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1.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이 왜 중요하냐? 성전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온전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은 성전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제 좀 살 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분명 성전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그대로 두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과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쟁에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세상 나라들과 어떻게 손을 잡을까만을 궁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우상에게 자신의 운명을 점치기에 급급했구요, 하나님은 잊은채 어떻게 나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만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저 성전에서 드러지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나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성전은 걸림돌이나 마찬가지로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언약기도 쓰고 있으니까 나는 다 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와 언약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지요. 어느새 내 중심과 마음을 담아서 누려야 하는 예배와 언약이 나의 실질적인 능력이 아니라 핑계가 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지 50년만에 바벨론 제국을 몰락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전 537년에 유다의 왕족이었던 스룹바벨을 리더로 해서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와서 자신이 총독으로서 자신의 권한과 자리를 챙기지 않고, 제일먼저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있던 50여년의 세월동안 예루살렘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세력을 얻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전건축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기초만 놓은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6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 학개,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스룹바벨은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하고 싶지만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스룹바벨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다. 오직 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너의 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권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에게 군대가 없고 권력과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나의 일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이 능력을 너희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것이지, 내힘이나 능력, 조건이 따라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재건은 오직 성령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

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너무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파괴되어 있다는 말이 너무나 과한 표현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 상처들이 나에게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힘으로 다시 세우기에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안에 오셔서 우리는 능력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워진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7절에서 말하는 큰 산은 스킴바벨과 이스라엘 백성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대적들과 군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은 이들이 성전건축을 재개하려는 깃새만 보이면 공격하겠노라고 협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대적들이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동일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도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나의 힘으로 넘기 어려운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나의 체질들, 상처들, 나약함,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내가 보기에 문제들이고 어려운 일들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식은죽 먹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산을 무너뜨려 주시는거예요. 그냥 놔두면 되는데 괜히 건드려서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못 보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나의 힘 쓰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면서 따라가면 이 모든 것들 다 무너질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정복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이모양 이꼴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7절 스킴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때라는 말은 성전을 결국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마무리 하고 나서 그 머릿돌을 놓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결국 스킴바벨이 힘을 얻어서 4년후인 주전 516년,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지 정확히 70년만에 이 성전이 다시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70년만에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 성전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수 있을까,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확인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문제와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큰 축복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역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들은 나에게 오히려 증거요 축복의 발판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하나님은 스킴바벨이 이 성전 건축을 끝까지 스킴바벨의 손으로 완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킴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주셨습니다. 그 다림줄로 모든 것을 측량하고 결정하고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문제와 상처를 뛰어 넘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는 그 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보장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나의 성전을 회복하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능력을 회복할수 있을까요? 이제 나의 성전을 재건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재건합니까? 기도 24를 통해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모든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16-17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간혹 가다가 언약을 누리면 되니까 마음껏 언약을 누리면서 육체의 소욕도 같이 누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도 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것을 따라가면서 내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으로 만들려고 해도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무슨 일이 되든지냐 하면, 고린도전서 12: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이유는, 나의 영적문제들, 그리고 삶의 고단한 문제들 아무리 펼쳐내려고 해도 잘 안되잖아요. 누리라고 하는데 안 누리지않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인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죽을테니 이것을 너의 죽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 문제들, 오래된 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 끝내주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이미 그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어. 못움직여, 아무것도 못해, 내가 이 사실만 기억하면 내 능력으로 뭘해보려 하기 보다는 기도하게 될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17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인생이 된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538년전에 완공되었던 이 성전은 나무와 돌로 지어졌던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앞에 서야 할 나의 가정과 현장이구요, 우리 교회이고 온 세계인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구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